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발행부수 유료구독률 1위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제주 공공주도 풍력개발 사업 '난기류'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시행 예정자 지위 이달로 만료

도, 공공성 강화·투자 활성화 방안 놓고 '심사숙고'

전문가 "풍황계측기 설치 사업자 공모 방식 전환을"

제주자치도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1.0)이 이달 만료될 예정이어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 연장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육·해상 풍력 개발 사업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에 비중을 둘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9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1.0)'을 발표하면서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는 2022년 12월 30일까지이다.

제주에너지공사에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풍력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풍력자원의 공적관리를 통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이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에 풍력발전 지구 지정,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풍력 개발 후보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지정 및 인허가절차 완료 후 경쟁에 의한 풍력발전 민간 참여사업자 선정, 풍력발전 공동 개발을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도는 제주에너지공사에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육상풍력개발 151MW와 해상풍력개발 702MW에 대한 사업 추진 독점 권한을 줬다. 기존 사업자들의 요구를 감안해 탐라해상풍력(30MW)과 한림해상풍력(100MW) 및 대정해상풍력(168MW)은 권한에서 제외했다.

이후 제주에너지공사는 독점적 육·해상풍력 개발권을 갖고 2015년 11월 후보지 공모를 통해 육상 1개(구좌·행원)와 해상 3개(표선·세화, 월정·행원, 한동·평대) 후보지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한동·평대는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거쳐 SPC 구성 단계에 와 있다. 월정·행원해상풍력은 도시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풍력발전 사업들은 기존 사업자와의 문제 미해결, 주민민원과 환경성 문제, 인력과 예산 부족, 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등으로 무기한 표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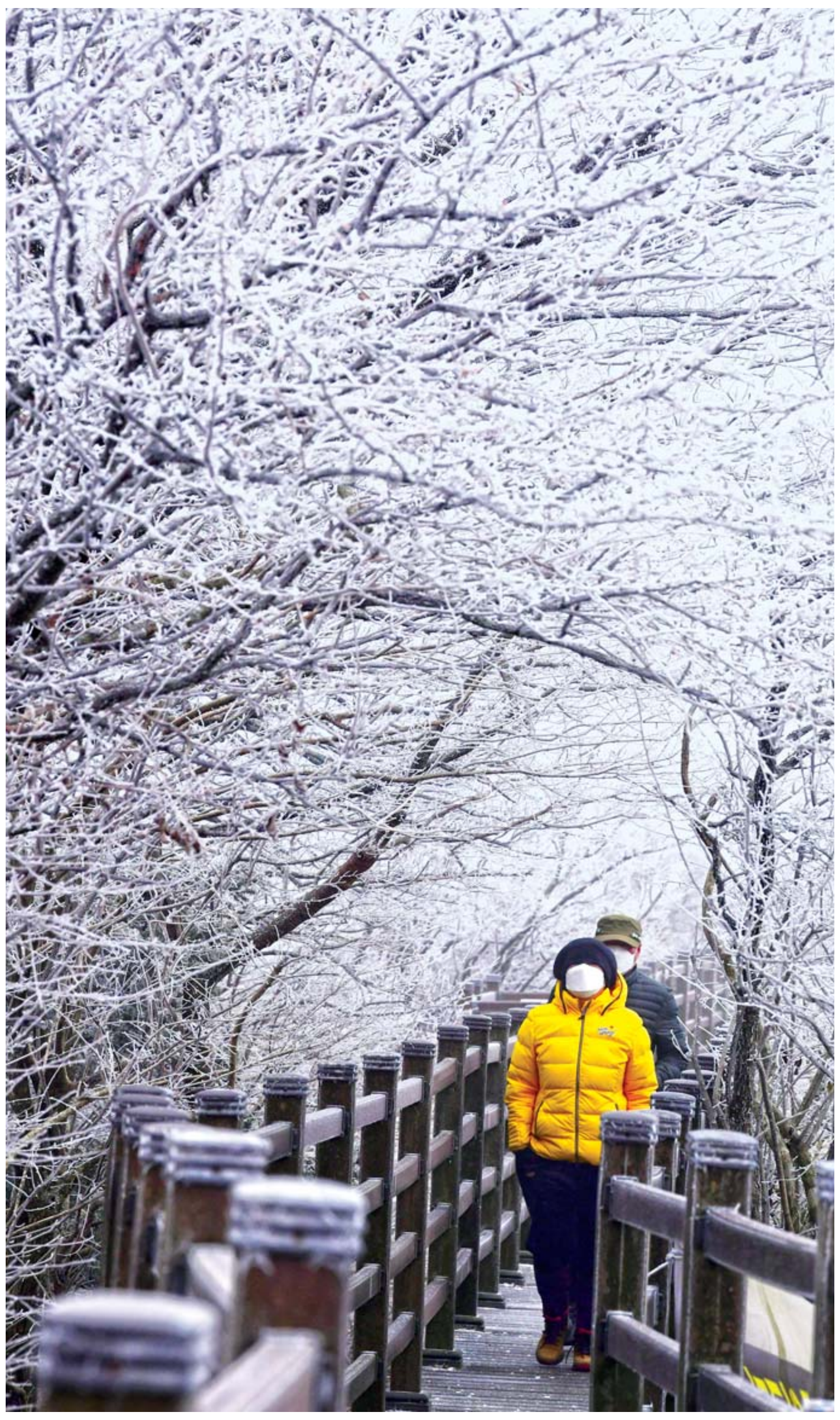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지정 만료일을 앞두고 투자 활성화 등을 감안해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 연장 여부와 권한 축소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 한 풍력발전 전문가는 "제주에너지공사가 SPC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지금까지 SPC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너지공사가 도내 해상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확보·축적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면 공공성 강화는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2.0)'을 확정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주에너지공사 권한 축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겨울 시작 알리는 한라산 상고대 제주 일부지역 체감온도가 영하권까지 떨어진 30일 1100도로변 나무마다 하얀 상고대가 맺혀 탐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코로나19 잠정집계 30일 <17시 기준>	
신규	309
누적	34만9071

제주섬 올겨울 첫눈·맹추위

일부 지역 체감온도 영하권… 오늘은 더 추워

제주에 올겨울 첫눈과 함께 맹추위가 찾아왔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30일 오전 5시쯤 한라산에서 CC(폐쇄회로)TV를 통해 첫눈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3시49분쯤 제주도 해안지역에서도 첫눈(싸락눈)이 관측됐다. 해안지역 첫눈은 작년보다 17일, 평년보다 10일 빠른 것이다.

기온도 뚝 떨어졌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주요 지점별 일 최저기온은 제주 4.7℃, 서귀포 7.2℃, 성산 3.6℃, 고산 4.4℃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5℃ 이하까지 떨어졌으며 낮 기온이 6~7℃ 에 머물러 온종일 추웠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고산과 성산 등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졌다.

현재까지 산지에 눈이 쌓이지는 않았지만 서쪽의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해수면이 만난 영향으로 30일 늦은 밤부터 1일까지 산간에 최대 7㎝의 눈이 내려 쌓이고, 중산간 지역에서도 3㎝ 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특히 1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은 3~5℃ 머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2일까지 이어지다 이후부터 서서히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항공우주산업 육성 '빨간불'

정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제주 언급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항공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타 지역 중심으로 우주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어서 제주지역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은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최근 구좌읍에 국가위성센터가 개소하는 등 우주산업 위성활용 분야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0월 27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운영과 관련한 심포지엄에서 민간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산업을 제주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전·전남·경남 3개 지역에 우주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우주산업 관련 제주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우리나라를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누리호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체와 위성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전, 전남,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통해 우주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은 연구·인재 개발, 전남은 발사체 산업, 경남은 위성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과 관련 대전·전남·경남 3개 지역 외에 다른 특정 지역에 대해 검토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연동365일의원 진료과목 내과 / 소아청소년과
2020년 보건복지부 지정
2015년 부터 6년연속 지정
달빛 어린이병원
주중 평일 아침 9시 ~ 밤 11시까지
토 · 일 · 공휴일 밤 12시까지 진료
☎ 727-3651
연중무휴 / 야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51005-중-77573
도민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연동365일의원